



갈보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올해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사들, 어린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해외한인 장로회(KPCA) 뉴질랜드 노회 연합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일시: 9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준비: 연합 찬양대, 예배 안내: 2,3 여선교회, 주차 안내: 3 남선교회).
3. 지난 주에 세례 받은 성도입니다. 김태성, 변현희, 박에스터(입교), 박예원(입교), 세례 증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 향존 직분자들은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기를 당부합니다.
5. 이경재(김지애) 집사 가정 이사했습니다. 21/99 Mays Rd. Onehunga, 전화 동일
6. 오클랜드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복음의 전함'(사단법인)과 함께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9월 30일(토)부터 10월29일 (주일)까지 매주 금, 토 시내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있습니다(간증집회 9월 30일, 한우리 교회. 포스터 참조)
7.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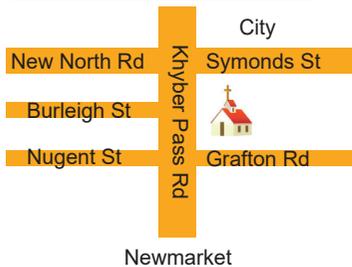
2017년 9월 10일 주일



2017년 표어 · '다음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신6:4-9)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 11:20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주일 2부예배	주일 PM 1:00	유 아 부	주일 PM 1:00
청년예배	주일 PM 3:15	아 동 부	주일 PM 1:00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청소년부	주일 PM 1:00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담임목사: 이태한

021-968-388 LTH-07@calvary.org.nz

부목사: 이성철

021-563-634 logosid@hanmail.net

부목사: 박태신

021-077-8382 nuggy308@hanmail.net

해/외/한/인/장/로/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예배 안내

주일 2부 예배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23:1-3
◎ 찬 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대 표 기 도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로마서 12:6-8
찬양대 찬양	구원의 능력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같은 지체, 다른 은사 2 이태한 목사
찬 송	이전에 주님은 내가 몰라 597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이태한 목사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 홍진혁 형제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정혜숙권사
성경봉독	에스더 7:1-10
설 교	넉넉히 이긴다 /이태한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송	359장
주 기 도	다같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9월 교회일지

세례식: 9월 4일(주일)
 금요저녁기도회: 9월 8일(금요일)
 성찬주일: 9월 24일(주일)
 권사기도회: 9월 24일(주일)
 노회 연합예배: 9월 27일(수요일)

9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박병민/이애란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은우 집사
 다음 주일: 정관영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박예원 자매
 9월 20일 수요: 김현주 권사
 9월 20일 애찬: 김은희 집사
 9월 24일 주일: 손조훈 집사
 9월 24일 청년부: 권우석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어 영혼 구원에 최우선에 두는 교회가 되도록.
2.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삶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해결의 역사가 있도록.
3. 복음의 전함과 함께 펼치는 거리 전도와 9월 23일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선교와 종보기도

이번 주는 오kland에서 타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장세중 선교사 소식입니다.

7번째 Ramadan Feast(라마단 만찬)

7번째의 라마단 피스트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진행, 마무리까지 FFF리더분들이 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방문을 위해 3개월 비운 후 150여명의 이웃들과 FFF지체들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 이웃들이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며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형제의 간증을 나눕니다. (이 이웃은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이웃입니다.) “라마단 피스트에 뒤늦게 초대와 받고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만약 이것이 알라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피스트에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설교는 제 마음속으로 바로 꽂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함께 더 나눠주세요.”

이 형제의 부모님은 지역 모스크의 리더입니다. 저희가 3월/4월에 나누었던 기도 편지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매가 “뉴질랜드의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뉴질랜드로 남편과 함께 돌아오고 싶다”라는 간증 기억하시죠? 기도 부탁드렸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자매가 남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뉴질랜드에 가족들을 찾았으니(FFF)함께 돌아가자, 나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대화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많은 사업을 뒤로한 채 뉴질랜드로 아내와 완전 이민을 결정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스트 다음날부터 매주 FFF모임에 오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개종한 이웃들이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2. 난민허임을 기다리고 있는 D형제와 S자매에게 허임이 되도록.